

책이 있어 더 가고 싶은 도량

개원 10년 해원정사 도서관... 매달 신간 구매로 '인기 몰이'

8월 여름의 한가운데 도심 속 산사에서, 바람에 실려온 싱그러움 능소화향을 벗 삼아 마음을 적시는 한 권의 책을 읽는다. 은은한 한잔의 차를 마시며 책 장남기는 소리마저 고요한 이곳은 부산의 포교중심 해원정사의 작은 도서관이다.

부산 연산동 해원정사주지 원혜는 1990년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개방했다. 처음에는 5-6평 남짓의 빈방에서 사찰 소우 책에 번호를 붙이고 대출대장을 만들어 아는 신도들만이 알아알이로 이용했다. 점차 도서관을 이용하는 신도들이 많아지고 책이 늘어가면서, 도서관을 확장해 도서관 봉사자가 근무하는 책상과 컴퓨터를 갖추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약 20평 규모의 고풍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지 원혜 스님은 "그때만 해도 일반인이 불서를 구하기 쉽지 않던 터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꼭 읽고 싶고, 불교대학 신도들과 스님들이 읽던 책들을 모아 빌려주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국내에서 사찰이 도서관을 10년 이상 유지·발전시킨 곳은 열손가락에 꼽을 만큼 드물다. 도서관 운영은 그다지 새로운 건물이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인력수급과 예산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소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비치된 도서의 대부분은 한 번 기증 받은 도서로 꾸리고 있어, 양질의 도서를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해원정사 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지 원혜 스님의 확고한 신념으로 매월 15만원 이상의 예산 배정을 끊이지 않고 해운에서 찾을 수 있다. 절 살림에서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도서관을 위한 예산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지급했다. 어린이도서 3-4권, 수필 2권, 소설 2권, 불교서적 3권 등 매월 10권 이상의 신간도서를 구매한다. 특히 새로 나온 불교서적과 베스트셀러는 최우선으



10년째 꾸준히 도서관을 운영해온 해원정사. 신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20여 명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로 구매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혜 스님은 "최근 종교탄압 등 불교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청소년 포교를 소홀히 해 인재를 기르지 못한 탓도 크다"며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돈이 나가지만, 청소년포교는 사람이 남는 것이니 멀리 보고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짧고, 연체 시 벌금 및 동기간 대출금지 등 도서관 대에 관한 규칙이 까다로운 일반 도서관과 달리 최소한의 규칙 및 탄력적 운영이 이용자의 증진에 한 몫 했다. 이곳 해원정사 도서관은 매월 정기법회일인 1·3·8·15·18·24일 등 총 6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달에 단 18시간 개방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신도들이 많고, 불교 경전은 한자가 많고 내용 또한 어려워 읽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대출기간은 무제한이다. 더불어 도서관이 문을 닫은 날에는 종무소에 반납할 수도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매번 도서관 개관시 가장 먼저 들르는 장명순(56·법명 대지인)씨는 "늘 책 한권씩 빌리면 그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다 읽어

버린다"며 "도서관에 와 있으면 보고 싶은 도반들도 만나고, 꼭 읽고 싶은 신간은 봉사자에게 신청하면 다음 달에 어렵지 않게 사다 주니까 더없이 좋다"며 칭찬했다. 도서관리 봉사자 신향옥(43·법명 보은인)씨는 "처음 도서관을 찾는 분들은 불교서적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 지레 겁을 먹지만, 가벼운 수필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깊이 있는 경전해설문집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원정사 도서관은 불자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하고, 스님과 사찰의 포교에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불자들에게 책임감을 권장하고, 책을 통해 올바른 불교교리를 익혀 수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스님의 법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책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 사찰의 일일 공간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줌으로써 사찰과 대중의 거리를 좁혀 포교의 장으로 삼았다. 어린이도서를 대폭 확대해 온 가족이 함께 사찰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열린 포교의 장이 됐다.

원혜 스님은 "불교에 '사교인선



(捨教入禪)'이란 말을 경전을 보지 않고 참선만 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가진 게 있어야 버릴 수 있듯 경전공부를 마친 후 참선 하라는 뜻"이라며 "어릴 때부터 만화로 된 부처님 이야기와 같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도서관에서 차담을 나누고 수행상담을 하는 등 도서관을 안락한 수행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자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불교는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불교인의 지적수준이 포교의 대상이 될 비불자들이 이웃종교인들을 앞서는 못할망정 뒤쳐져서는 안된다. 책 읽는 불자의 두 어깨에 한국불교 미래의 사활이 걸려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소원을 말해봐~봐~봐~”

제주 약천사, 특색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인기’

올 여름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전국의 불자들이 일반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약천사는 '지금은 부처님시대, 소원을 말해봐!'를 주제로 7월 25-26일 유치부와 초등학생, 7월 27-29일 초등학생 고학년 여름불교학교 및 7월 30일-8월 1일 템플스테이 등 총 3차에 걸친 여름불교학교를 성료했다.

모집 정원은 1차 100명, 2차와 3차 각 30명이었으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각 130명, 80명, 50명 등 총 3차에 걸쳐 어린이 및 성인 불자 260여 명이 약천사 여름불교학교를 수료했다. 이들 중에는 1차 때 참가하고, 2차와 3차에도 뒤늦게 합류한 이들도 적지 않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상승세가 이어져 1999년부터



제주 약천사는 '지금은 부처님시대, 소원을 말해봐!'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10년째 열린 여름불교학교 중 참 여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는 약천사만의 특색 있는 기획으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의 틀을 깨트렸다. 인기가 수의 구조에서 따온 '지금은 부처님시대! 소원을 말해봐'를 주제로 오채투지, 명상 그림그리기, 소원풍선 날리기, 미니올림픽, 연극 연습, 물놀이, 제주 올레길 걷기 등 다양한

이색프로그램으로 호응이 높았다.

모집정원을 초과한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기존 어린이법회 지도 교사와 자원 봉사자 등 약 20여 명의 진행요원이 노력하게 진행해 경미한 안전사고나 낙오자 없이 원만회했다.

이번 약천사 여름불교학교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비불자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불법홍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지 성원 스님은 "요즘 아이들이 바라보는 미디어 속 세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겨 탐하고 욕심내는 소원만을 품게 만든다"며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와 남을 위한 소원을 빌 수 있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굳은 신념으로 불국토 구현하자”

법우회, 이갑준 3대 회장 취임

부산광역시 공무원불자모임 법우회의 제3대 회장으로 이갑준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법우회는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에서 취임법회를 열었다. 이날 취임법회는 발원문 봉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인사 및 취임사, 격려사,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갑준 신임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데 힘쓰고, 불교의 수도 부산에서 법우회를 활성화시켜 전국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부처님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좋은 기회다 여기며, 여러 부산 공무원 불자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도 법회에서 "사찰 생활에서는 물량이 태산같이 많다 해도 결국은 변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공물을 아끼고 또 아끼 시주들의 공덕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도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축적함은 부처님 계율에 어긋

나고 계율에 큰 허물일 것"이라며 "안으로 자성복지해 자기를 배신하지 말고, 결코 물러섬이 없는 굳은 신념으로 불국토를 구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삼입부회장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사무총장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및 부산시 법우회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이갑준 회장은 1957



7월 30일 부산광역시 공무원불자모임 법우회 이갑준 신임회장 취임법회가 열렸다.

년 남해 출생으로 부산시 국제협력과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 기획재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신도회 하계수련회 개최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8월 22-23일 1박2일간 2009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22일 첫날 오대산 월정사와 강릉 상원사, 23일에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등 부처님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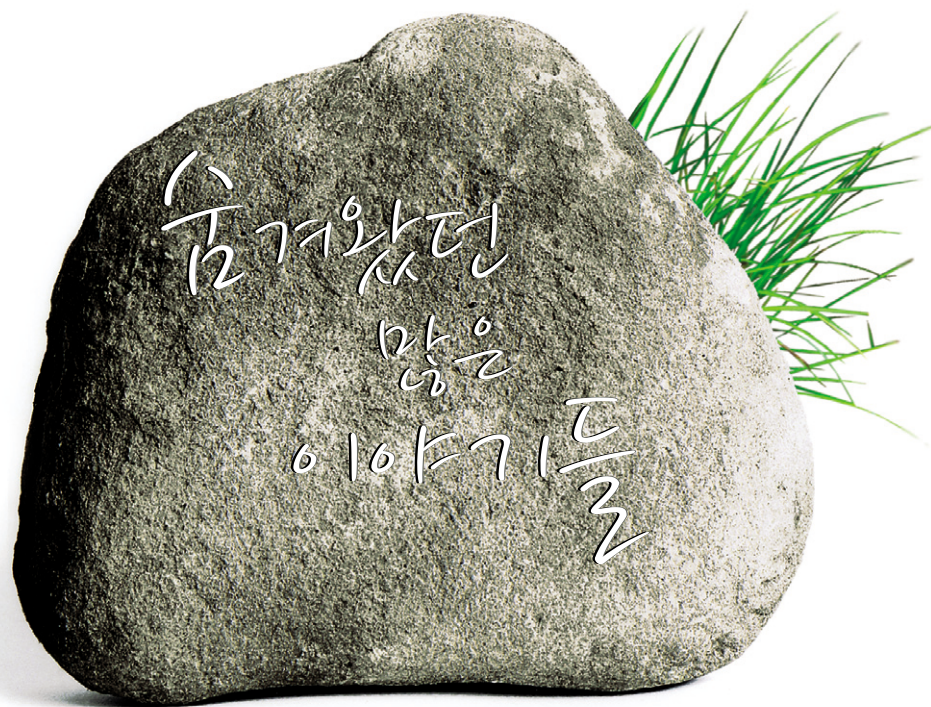
신사리가 봉안된 적멸보궁과 천년 고찰을 차례로 참배한다.

참가비는 6만원이고, 세련도구와 필기구 등을 지급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참가하면 된다. 접수는 8월 14일까지. (051) 853-8539

박지원 기자

도서출판 國美카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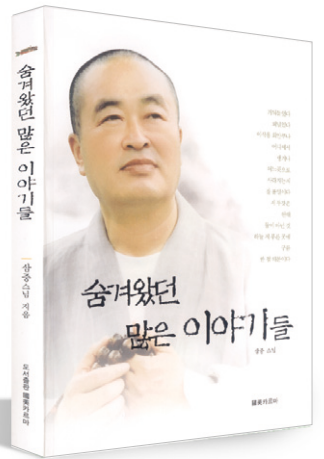
삼중근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 에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인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근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곳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근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백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맞쳐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박한 삶의 빛을 다 갖고 떠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 삼중근스님 저 | 신국문 발행 335쪽 12,000원 |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구입신청 051)583-9923-5 |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근)